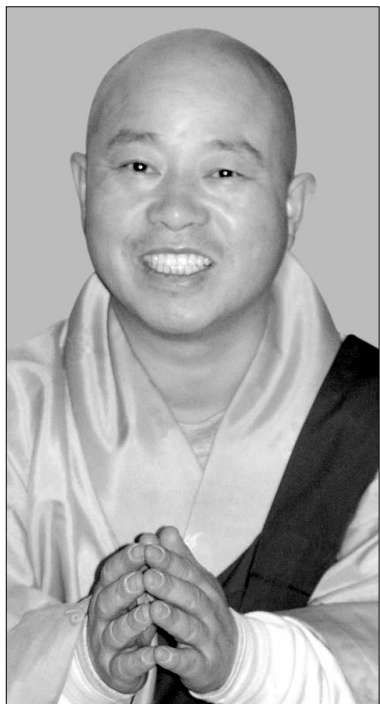


“고령군 구석 구석 연등 밝혀야죠”



고령지역 불교 발전을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반룡사 주지 법륜 스님.

반룡사 주지 법륜 스님 고령불교 살리기 동분서주

법륜 스님이 경북 고령군 반룡사 주지 소임을 맡은 것은 7개월 전. 그간 법륜 스님은 불교대학을 개설했고, 경찰불자 범우회 창립을 이끌었다. 몸무게가 10kg이나 빠졌지만 보람은 100kg도 넘는다. 특히 지난해 12월 30일 개강한 불교대학 신입생

소'였다. 고령군은 인구 4만명의 작은 도시지만 70~80%가 불자다. 그런데 고령불교가 이렇게 침체한 이유 중 하나가 대구와 해인사에서 멀지 않은 지리적 조건 때문이다. 지역 불자들이 지역 사찰은 외면한 채 대구와 해인사까지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불교대학 개설·경찰불자 범우회 창립

신도회·운전불자회 등 단체 결성 계획

은 150여명에 달한다. 1기생이 70명이며 나머지는 2기생으로 입학을 요청한 상태다. 1월 3일부터 시작한 수업은 두 반으로 나눠 매주 화·수 1시간씩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된다.

농촌 지역이고 산골에 위치해 있어 부처님 오신날이나 백중같은 명절에도 50명을 넘지 못하는 법회 인원이 반룡사의 '현주

그러나 이제 반룡사는 달라졌다. 법륜 스님은 "고령지역 불자들이 고령불교를 일으키고 고령지역 발전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많은 고령불자들이 따르기 시작했다. 법륜 스님이 처음 소임을 맡고 한 일은 지역불자를 만나고 마음을 읽는 일이었다.

그리고 지역불자들을 깨우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래서 문을 연 불교대학의 첫 신입생은 3명. 지역 불자들은 하나같이 부질없는 일이라며 웃어 넘겼다. 그러나 스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 나섰

고, 설득했다. 마을 곳곳에 현수막을 붙이고 집집마다 전단지들을 돌렸다. 그 결과 12월 30일 50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대학 개강법회를 봉행할 수 있었다.

반룡사는 이렇게 활력을 되찾았지만 길은 멀다. 신도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전의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님은 이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를 위해 스님은 지난 2월 초에 30명의 신도들로 구성된 신도회구성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 우선 부처님오신날까지 신도회장을 임명하고, 8개면에 지부장을 두는 50명의 임원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 거사탑회, 운전불자회, 교직자 불자회, 군청 불자회, 봉사회, 지장회 등의 실행회도 차례로 창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운전불자회는 창립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반룡사의 밤을 밝히는 성도절 연등이 고령 땅 구석구석까지 남김없이 밝히는 그 날까지 반룡사의 포교대행진은 계속될 것"이라는 법륜 스님의 원력은 누구보다 크다. (054)954-1498

글·사친/고령=배지선 기자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새



신상용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대구지역회 회장

대구 불교계의 크고 작은 행사에 항상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 바로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운불련) 대구지역회 신상용(52) 회장이다. 운불련 대구지역회 650여 회원의 수장인 신회장은 언제나 주황색 셔츠의 제복을 깔끔히 차려입고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로서 임무를 다하기 위해 밤잠을 설치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크고 작은 교계 행사에 참여해 운불련 활동을 알리고, 내적으로는 650여 회원들을 화합으로 묶으며 부처님의 제자로 자긍심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혹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행사라도 있으면 어김없이 회원들과 함께 교통정리와 질서유지를 도맡아하고, 차안에 비치한 겸 판매 수익금으로 매년 소

신회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물렸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것이라며 미소를 짓는다.

신상용 회장이 취임한지 2년이 지났다. 500명이 안되는 회원은 650명으로 늘었고, 대외적인 위상도 높아져 하루 콜란 5000통이 넘는다. 이제 1년의 임기를 남겨두고 신상용 회장은 아직 할 일이 많고 포부 크다.

대구시민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택시브랜드로 완전히 정착시키는 일이 남았고, 신축법당 건립과 주유소 충전소 사업추진을 통한 자체 자금을 만드는 일이다. 주유소 충전소 사업은 시작이 어렵지만 성공한다면 불교 포교는 물론 사회복지사업에 큰 동력이 될 것이다.

부처님의 심부름이라는 생각에 하루 3시간만 잠을 자고 뛰어다녔지만

회원화합 운불련 알리기, 지역봉사 앞장

교육·정기법회 통해 최상의 서비스 제공

년소녀가장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사회봉사에도 앞장서고 있다.

신 회장은 98년 이후 운불련에 가입했다. 처음에는 반야심경조차 몰랐던 그가 운불련에서 감찰부장, 부회장, 전국연합회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운불련 대구지역회장이며 전국연합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회원들에게 불자로서의 자긍심과 자세를 강조하는 불자가 됐다.

특히 2004년 운불련 회장에 취임하면서는 650여명 회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큰 힘이 되었다는 신회장은 언제나 '하심'이라는 두 글자를 가슴에 새기고 있다. 1988년 대리점 운영을 하다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나올 때, 대리점 운영이 안 되어 개인택시운전을 취득할 때,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스님들이 일러준 말이 '하심'이다. 억울한 마음에 따지고도 싶었고, 나와 맞지 않는 것을 밀어내고도 싶었지만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내고 참아냈다. 주위에서 왜 가만히 있느냐 바보냐는 소리까지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이들이 이해하고 따라주기 시작했다.

배지선 기자

보람되다는 신 회장은 가족들에게 가장 고맙고 미안하다. 택시운전이라는 것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인데, 온갖 행사며 봉사활동에 쫓아다니느라 생계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불법을 알게 된 것이 너무 다행스럽고 운불련 대구지역회장이며 전국연합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회원들에게 불자로서의 자긍심과 자세를 강조하는 불자가 됐다.

배지선 기자

화북댐 건설 사업비 배정 논란

인각사 주지 상인 스님 성명 "보존대책 없이 철저히 배제"

"군위군은 화북댐 건설에 따른 주변 환경 지원금 사업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새로 마련하라."

경북 군위군이 고로면 화북댐 건설에 따른 주변 정비 사업비 배정에서 인각사를 제외해 주지 상인 스님이 2월 14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상인 스님은 성명서에서 "군위 인각사는 화북댐 건설 예정지와의 거리가 불과 1.5킬로미터에 불과해 공사소음과 진동, 먼지 발생은 물론 댐 건설이후의 습도 상승으로 인한 목조건물의 훼손 등의 환경훼손 우려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군위군은 철저한 보존대책을 세우기는 커녕 댐건설 주변 환경 지원금 사업에서 인각사를 철저히 배제해 의혹의 눈길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스님은 "군위지역 최고의 문화유적이며 교육문화의 장으로 댐건설 예정지에서도 가장 가까운 인각사를 교육문화시설 정비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은 타당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지난 2004년 한국수자원공사가 경북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수립한 '화북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방안'에 따르면 인각사를 문화유

적지구로 지정해 친환경적으로 보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군위군은 "댐주변 정비사업비는 댐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지원하는 취지로 배정되는 것이어서 면단위 자치추진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결정했으며, 주민들이 원하고 합당하다면 사업계획의 변경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지선 기자

의성 고운사 본말사주지회의

의성 고운사는 2월 14일 고운사 대웅보전에서 제25차 교구총회 및 본 말사 주지회의를 열고 중무행정 우수사찰을 표창했다.

중무행정 우수사찰에는 정수사(주지 선취)가 표창을 받았고, 불사부문에서는 대곡사(주지 해봉)와 각화사(주지 노현)가 선정됐다. 이날 회의에는 40여명의 본 말사 스님과 종무소임자 스님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업무보고 및 불기 2549년 결산보고, 복지분담금 배정 등도 논의됐다. 또 개산 1325년을 맞아 4월 22일 경내에서 호국영령들을 위한 위령제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할 것을 결의했다. 행사는 개산대제기념법회와 불교어산작법학교의 진행에 따른 천도위령제, 안치환, 장사익 등이 출연하는 산사음악회로 이어지며, 사진전과 서예전도 개최할 계획이다.

배지선 기자

은혜사 무료한방진료 실시



2월 15일 영천 은혜사에서 무료한방진료 실시됐다(사진).

지장재를 맞아 지장전 1000일 기도 800일 법회가 봉행된 날, 법회에 참석한 신도와 지역 청문면 주민의 건강을 위해 은혜사가 장소를 제공하고 영천시 보건소와 경산 부림한방병원에서 한의사4명과 간호사 4명이 봉사활동을 나섰다.

은혜사 심검당과 승가대학원강당에 마련된 임시진료소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50여명의 신도와 주민들이 검진을 받고 침 부항 등의 처방과 약을 받았다.

배지선 기자

동화사 주지 추대위원회 발족

4월에 치러지게 되는 차기 동화사 주지 선거를 앞두고 동화사 주지 추대위원회(가칭)가 발족했다.

대구 소재사 주지 세정스님과 임후사 주지 현장 스님을 비롯한 동화사 본 말사 20여 스님들은 2월 15일 대구 모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선거과정에서 우려되는 혼탁, 과열을 방지하고 산중 교유의 대중공사를 통한 승가화합을 이루는 차원에서 도덕성과 수행력 등을 갖춘 주지 후보를 합의의 추대하기로 뜻을 모은 것.

동화사 주지 추대위원회(가칭)는 선거를 하지 않고 산중총회 또는 대중공사를 통해 주지 후보를 합의의 추대하는데 노력하고, 경선으로 가게 될 경우 공의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검증작업도 벌일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정월대보름 방생대법회



대구사원주지연합회(회장 법혜)는 2월 12일 '정월 대보름 달맞이 방생대법회'를 감포 나정해수욕장에서 1만여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봉행했다(사진).

조계종 원로 원명, 동화사 주지 지성, 대구사원주지연합회장 법혜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행사는 방생법요식, 달맞이방생의식, 삼재소멸 화합기원 달집점화 등으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됐다.

배지선 기자

광덕큰스님 추모 일만배 용맹정진 안내

귀의삼보하옵고, 누구나 자신이 부처임을 자각하고 부처로 살아가기를 간곡히 말씀하셨던 金河堂 光德 큰스님의 원적 7주기를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지혜의 반야바라밀다 사상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뜻에서, 부족하나마 저희 재가불자들이 큰스님의 기일을 앞두고 하루 동안 일만배 용맹정진을 갖고자 합니다.

큰스님의 자비하신 모습과 반야바라밀다의 높으신 가르침을 그리워하는 불자님들과 새로운 한국불교의 밝은 미래를 염원하는 불자님들께서는 이 번 추모정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큰스님께서는 한국불교의 면모를 새롭게 하는 길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달음의 삶 [보현행원]을 살아가는데 있음을 누누이 밝혀셨습니다.

이에 큰스님의 가르침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전법(傳法)으로 바른 믿음을 삼고 전법으로 정토(淨土)를 이루고자 저희 재가 불자들이 새로운 각오와 서원으로 마하반야바라밀다 염송일만배 용맹정진을 결행하오니 부디 환희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생명 부처님무량공덕생명 용맹정진하여 바라밀다국토 성취한다.

나무대행보현보살마하살

도피산사 불력법등 금강보살 덕담 박종린 함장

- 일 시 : 2006년 2월 25일(토) 0시부터 - 24시까지(24일 오후 11시까지 도착 요망)
- 장 소 : 보현도량 도솔산 도피산사 대웅전
- 연락처 : 도피산사 불력회 회장 덕담 박종린(016-204-4744), 총무 반야심 권오영(011-768-8881)

※ 7주년 추모제는 2006년 2월 26일(일) 10시 30분(기일은 양력 27일). 서울 서당지하철 8번 출입구 국민은행 앞에서 오전 9시에 버스출발

3·1절 기념법회 안내

안성의 보현도량 도솔산 도피산사는, 민족의 선각자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龍城 祖師의 유훈을 봉지계승하기 위한 대각회 소속의 구국구세 도량으로, 1992년 7월 6일 개산 이래 매년 빠짐없이 3·1절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각구국구세의 선각자이신 용성조사와 동산·소천, 퇴옹?금화로 이어지는 한국불교의 호법정신을 계승전장하여, 길이 중생세간에 펼쳐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경향각지의 뜻 있는 불자님들께서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다

불기 2550(2006)년 2월 15일

보현도량 도솔산 도피산사 주지 송삼지원 謹白

- 일 시 : 2006년 3월 1일 10시 30분
- 장 소 : 보현도량 도솔산 도피산사 대웅전
- 주 제 : '호법이 전법이고 구국구세' 다 (금강경을 중심으로)
 - 부제 : 현각은 전생에 한국의 독립군이었어!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2권 85쪽)
 - 법사 : 현각스님(미국인, 화계사 국제선원)
- 연락처 : (031)676-8700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 서당지하철 8번 출입구 국민은행 앞에서 오전 9시에 버스출발